

SSG 김광현, 올해 연봉은 81억원...단숨에 역대 1위



2023년 도입되는 샐러리캡 의식해 올해 지급액 늘려
FA신분 아니라 계약금 없어...연봉 늘리고 옵션 붙여

메이저리그(MLB)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인 SSG 랜더스로 돌아온 김광현이 올해 80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SG 류현규 단장은 16일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에서 열린 김광현 입단식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광현이 올해 연봉 81억원을 받는 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지난 8일 구단 출신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김광현과 4년 총액 151억원(연봉 131억원·옵션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총액과 달리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류 단장을 통해 일부 내용이 밝혀졌다.

3년만에 KBO리그로 복귀한 SSG랜더스 김광현이 SSG퓨처스필드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SSG랜더스 제공)

프리 에이전트(FA) 신분은 아니었던 김광현은 다른 대항스타들과 달리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SSG는 계약금을 주지 못하는 대신 연봉을 크게 늘리고 옵션을 붙이는 식으로 김광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총액 151억원은 이대호(롯데·4년)와 나성범(KIA·6년)의 15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계약 규모 1위에 해당한다.

류 단장은 "김광현에게 KBO리그 최고 대우를 약속했고, 그렇게 금액을 책정했다. (김광현과의 계약은) 비FA 다년 계약 케이스다. 계약금이 없고 연봉을 다년간 배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1년차에 연봉 절반이 넘는 81억원을 몰아넣은 것은 2023년 도입되는 샐러리캡을 의식한 결정이다.

샐러리캡은 2021년과 2022년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 옵션 실적금액, 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 평균금액의 120%를 상한액으로 한다. 샐러리캡 도입 전 장기계약한 김광현의 연봉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겠다는 것이 SSG의 생각이다.

류 단장은 "계약금이 없고 연봉을 다년간 배분하는 구조다보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4년 간 구단의 자금 상황을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그동안 KBO리그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으로 단번에 역대 연봉 1위를 꿰찼다. 종전 1위는 추신수(SSG)의 27억원이었다.

뉴스스

순천시청 유도팀, 2022년도 첫 전국 대회에서 순조로운 출발

여자일반부 개인전 -52kg급 박다솔 금1개·-63kg급 김지정 금1개·-70kg급 김혜미 동1개 획득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2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경국대표 2차 선발전(이하 순천만정원컵)에서 1일차 순조로운 첫 스타트를 끊었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1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순천만정원컵에서 여자일반부 개인전에서 -52kg급 박다솔 금1개 -63kg급 김지정 금1개 -70kg급 김혜미 동1개를 획득하며 총 금2개, 동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1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순천만정원컵에서 여자일반부 개인전에서 -52kg급 박다솔은 준결승에서 정보경(대구광역시청)에 손기술(한팔업어치기)로 절반 획득에 이어 한번 더 절반을 획득하면서 한판승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정예인(인천광역시청)을 지도3개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3kg급 김지정도 준결승에서 김유정(한국체육대)을 조르기로 한판승을 따내며 결승에 진출, 이주연(광주도시철도공사)에 절반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70kg급 김혜미는 박다운(성동구청)과의 준결승에서 절반승을 내주며 어렵게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감독 및 전남유도회 전무이사는 "동계훈련을 잘 준비한만큼 올 첫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은 경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한편, 순천시청 경기일정은 16일 +78kg급 신지영 선수 개인전과 17일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며, 지난 제주컵에 이어 단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현대건설, 통합 우승 위해 내일부터 본격 담금질

V-리그 여자부 20일 IBK기업은행-KGC인삼공사전 시작으로 리그 재개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직행 티켓을 잡기 위해 다시 담금질을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오는 22일 홈구장인 수원체육관에서 페퍼저축은행과 일전을 치른다.

시즌 28승 3패를 기록중인 현대건설은 리그 1위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최악의 페퍼저축은행과의 맞대결에서 5전 5승을 올렸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월등히 앞선다. 현대건설은 이날 경기에서 승점 1만 확보하면 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최근 리그 중단 사태로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여파로 리그 중단이 길어지면서 포스트시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한 번 2019~2020시즌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현대건설은 리그 1위를 달리다가, 코로나 여파로 리그가 중기 종료돼 챔피언결정전을 치르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역시 초반부터 연습을 거듭하면서 통산 두 번째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었기에, 리그가 단숨, 취소 되는 것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배구연맹이 논의 끝에 6라운드를 모두 소화하고, 포스트시즌 축소하기로 발표하면서, 현대건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대건설은 멋진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현대건설에 확신 선수는 아무도 없다. 격리 해제가 된 후 경기에 펼 수 있도록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통해 몸을 만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불 훈련 등 실전훈련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리그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시즌 초·중반 내용을 겪었던 기업은행 마지막 6라운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KGC인삼공사 역시 리그 재개를 기다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장흥군 출신 씨름선수 문형석·문준석 형제장사 등극

2022 정남진 장흥 장사씨름대회서 9년만에 형제장사 등극



장흥군에서 펼쳐지는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장흥군 출신 문형석, 문준석 형제가 나란히 장사에 등극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00년 이후 22년만에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씨름대회에서 두 선수가 형제 장사에 등극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대회 기간동안 부상없이 안전한 경기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대회 3일째인 15일 형 문형석(수원특례시청) 선수는 8강에서 황성희(울주군청), 4강에서 임태혁(수원특례시청) 선수를 각각 2-0으로 완승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문형석은 금강장사 결정전에서 김기수(수원특례시청) 선수를 3-1로 제압하며, 개인 통산 4번째 금강장사에 올랐다. 경기 중에는 전날 태백장사를 차지한 동생 문준석 선수가 형 문형석의 따듯한 응원을 받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비춰지며 감동을 전했다.

두 선수는 2013년 추석 씨름대회에서 형제 장사에 등극한 이후 9년만에 고향인 장흥에서 나란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문형석 선수는 "고향에서 형제 장사가 되어 매우 기쁘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2000년 이후 22년만에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씨름대회에서 두 선수가 형제 장사에 등극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대회 기간동안 부상없이 안전한 경기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호, KBO 은퇴투어 어떻게 진행 되나

팬 사인회→원정팀 선수와 기념촬영 및 감사 선물 증정→원정팬에 마지막 인사

'아~ 아~ 이승엽, 삼성의 이승엽~'. 2017년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인 사직구장에 KBO의 레전드 이승엽의 응원가가 울려퍼졌다.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팬이 이승엽의 응원가를 열창하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 야구의 레전드 이승엽은 KBO 모든 선수들과 야구팬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은퇴를 맞이했다.

이승엽은 KBO의 역사상 처음 은퇴투어 행사를 치렀고, KBO는 2022년 이대호가 역대 두 번째로 은퇴투어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은퇴투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선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은퇴를 공식 발표한 선수 중에 KBO리그와 국제대회 등에서 뚜렷한 족적이 있는 선수여야 비로소 10개 구단의 홈구장에서 작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은퇴투어는 KBO가 공식 발표했지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구단이 여건에 맞게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 은퇴투어는 시즌 후반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승엽의 투어를 기준으로 보면 롯데와의 마지막 홈경기를 'D-데이'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은퇴투어의 화두는 '작별'이다. 은퇴투어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가장 먼저 경기 전 야구장 밖에서는 팬 사인회가 열리며, 약식으로 기념촬영 등이 이어진다. 각 팀 선수들은 모두 모여 은퇴를 앞둔 선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감사 선물 등을 증정한다.

선수는 다시 설 수 없는 무대와 다시 볼 수 없는 원정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전광판에는 은퇴 선수의 영상이 나오며, 환호와 영광의 순간을 함께 즐긴다.

후배들은 선배와의 마지막 대결을 추억으로 남기며, 투어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뉴스스

에릭센 꿈을 이뤘다...덴마크 대표팀 복귀

지난해 6월 심장마비 발생 후 9개월여만에 명단 포함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다시 클럽팀에 들어가 경기를 치르고 덴마크 대표팀에 포함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었던 꿈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달 치러지는 A매치 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덴마크축구협회는 1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 네덜란드, 세르비아와 갖는 평가전을 치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에릭센을 포함시켰다.

에릭센은 지난해 6월 13일 핀란드와 치른 유로2020 조별리그 경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 9개월여만에 다시 덴마크 대표팀에 포함됐다.